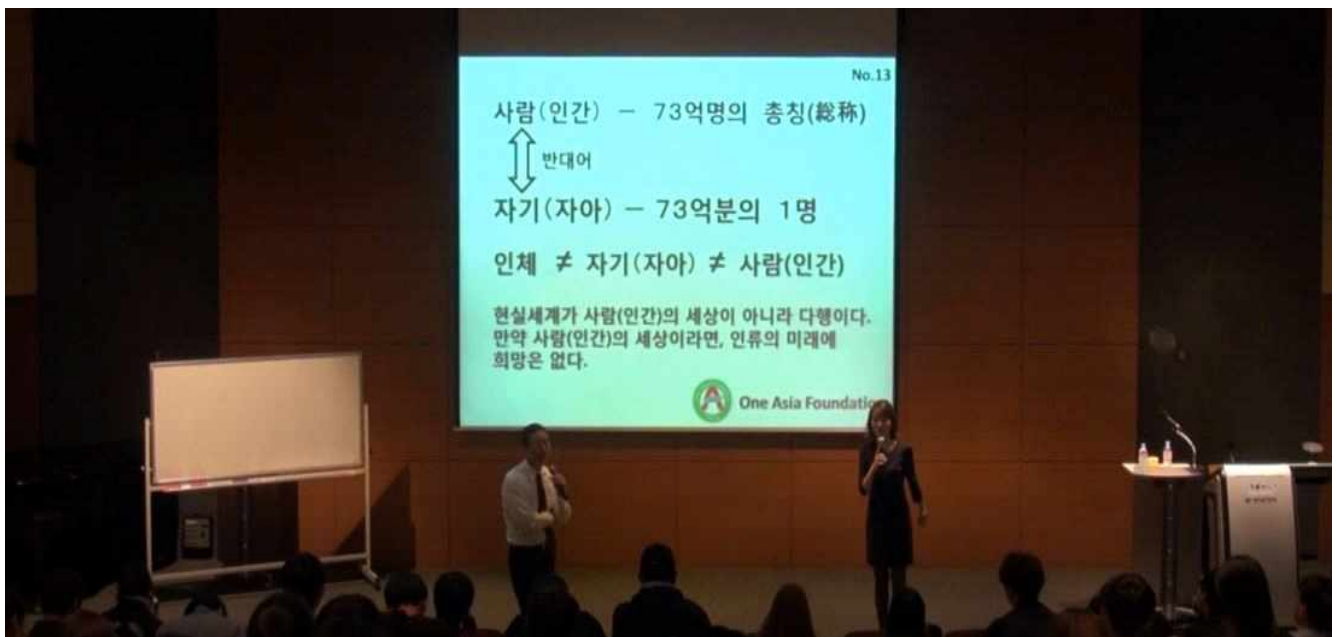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 드리는 열여덟 번째 “영상택배” 안내



이번 주 영상 택배 강연은 일본 원아시아재단의 사토 요지 이사장이 진행하는 **“머지않아 세계가 하나로”** 입니다. 사토 요지 이사장은 그 자신이 디아스포라로 재일동포 3세이며 ‘미래를 위한 아시아 공동체의 창출’을 목적으로 사재 1200여 억원을 출연해 원아시아재단을 설립하고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지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 회원의 날 취소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0년 회원의 날과 개원 기념식이 안타깝게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대신하고자 지난 13년간 회원의 날의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우리 연구원이 문을 연 날이 2006년 9월 2일입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개원 일을 전후로 회원의 날과 개원 기념식을 거행해왔습니다. 작년까지 모두 열 번에 걸쳐 열린 회원의 날에 참석한 분들이 누적 인원 천여 명에 이릅니다.

2010년 열렸던 회원의 날에 참가자 가운데 가장 어린 이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김병문 이사장님의 자녀였는데 어느새 이십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당시 대학생으로 회원의 날 스텝으로 참가했던 회원들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연구자가 되어 연구원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했습니다. 강산이 변할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연구원 회원의 날 기록을 짧게나마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 회원의 날을 진행했던 곳이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휴양림이었습니다. 2010년 8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던 연구원 첫 번째 회원의 날에 이어 이듬해 8월 27일과 28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에서 두 번째 회원의 날이 열렸습니다. 평치마을과 도농상생 협약을 통해 농촌마을과 인문학의 동행이란 주제로 시작된 공동사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원의 날은 2012년 8월 25일과 8월 26일 양일에 걸쳐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빗속을 뚫고 하늘로 솟아 오르던 풍등의 향연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네 번째 회원의 날은 2013년 8월 31일과 9월 1일, 전북 장수군 번암면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이사님이 진행한 뜰체험을 서로 받으려 침대에 눕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섯 번째 회원의 날이 열린 날은 2014년 8월 30일과 31일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 회원의 날에 90분 동안 진행되었던 왕기석 이사님의 소리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여섯 번째 회원의 날은 2015년 8월 22일과 23일에 전북 완주군 초남이 성지에서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 회원의 날은 개원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2016년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서 열렸습니다. 1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변산 앞바다를 수놓던 수백의 풍등과 밤하늘을 울려 퍼진 함성이 떠오릅니다. 여덟 번째 회원의 날은 새 모습으로 단장한 초남이 성지에서 2017년 9월 2일과 3일 열렸습니다. 늦여름 새벽을 열던 초남이의 여명이 기억납니다. 아홉 번째 회원의 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2018년 9월 1일과 2일에 걸쳐 80여 분의 회원과 함께 열렸습니다. 지금은 배우 조정석씨의 아내가 된 가수 거미씨의 어머니가 회원의 날에 참석해 왕기석 이사님과 함께 작은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열 번째 회원의 날은 우리 연구원 김순석 회원이 원장으로 있는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열렸던 열 번째 회원의 날은 전통 한옥 체험과 향음주례 체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열한 번째 회원의 날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열리지 못하지만 2021년 개원 기념일 즈음에 열릴 수 있다는 바람을 나눠봅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 열한 번째 회원의 날에도 아래 그림처럼 세대를 넘어 서로와 서로가 마음 나누는 날이 될 것이라 믿으며 내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태풍 “사라”와 디아스포라 (1959년 9월 17일)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당장 내일 새벽도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연구원 영상택배로 수개월 째 만나고 있는 디아스포라 강좌를 들어본 이라면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자로는 이산(離散)이라고도 한다. 원래 살고 있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주를 택해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오늘 이야기 될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첫 번째 디아스포라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의 디아스포라는 1959년 추석에 만난 태풍으로 인한 비극이었다.

지금도 70대 이상인 시민들은 선명하게 기억하는 태풍이름이 있으니 바로 “사라”이다. 구약성서에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바로 그 이름이다. 1959년 9월 12일 발생한 태풍 사라는 9월 17일 한반도 남쪽을 처참하게 할퀴고 지나갔다. 슈퍼컴퓨터로 예보하는 지금의 기상청도 예보가 아니라 중계라는 비난을 늘상 듣고 있으니 당시 기상청의 전신이던 관상대의 예보는 짐작할만하다.

관상대는 한반도로 접근하며 태풍의 위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민인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1959년 9월 17일은 추석이었으니 전쟁의 뒀안길에도 서로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으로 오였던 이들에게 초대형 태풍이 덮쳤다. 최대 초속 85m(시속으로 환산하면 300km가 넘는다)의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를 강타한 사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몰고 왔다.

전국적으로 사망 849명, 부상 2533명, 실종 206명의 인명피해 이외에 이재민이 100여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선박 11,704척과 주택 1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도로 10,226개소, 제방 1,618개소, 축대 152개소, 교량 2개소가 유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긴 재산 피해는 당시 화폐 단위로 약 1662억원(당시 정부 1년 예산의 430%에 이른 금액이고 2020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7조원에 다다른다.)이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던 와중에 경북 울진군 근남면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논밭과 주거지가 구분 안될 만큼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추석에 몰아닥친 태풍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강원도지사가 철원으로 이주를 제안했다.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했건만 정부의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이 제안에 응해 1960년 4월 7일, 예수 여섯 가구 삼백쉰아홉명이 한국전쟁 이전에 38선 이북이었던 김화군 마현리(1963년 철원군으로 개편)로 이주했다.

그런데 이주 열이틀 만에 4월 혁명이 발발했고 이 와중에 울진에서 디아스포라한 예수 여섯 가구의 행정서류가 없어졌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진행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다.

온전히 이주민들의 힘으로 DMZ 귀퉁이를 일구며 개간했고 밤이면 밀주를 만들어 군부대에 팔며 간신히 생계를 꾸려야했다. 땅을 개간하다 부지기수로 튀어나오는 지뢰에 주민들의 육신은 흩어져갔다. 지뢰 반 흙 반인 지뢰밭에 부러진 이들의 숙명이었다.

군용막사 하나 던져주고 지뢰밭을 개간해서 먹고 살라는 정부가 있던 시절부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히 황무지를 옥토로 일군 이들은 그 신산스런 세월을 이겨내고 황무지를 강원도 최대의 옥토인 철원평야로 일궈냈다.

1959년 오늘, 태풍 사라로 인해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살던 삼백쉰아홉명의 디아스포라를 증거하는 철원군 근남면을 기억하는 것은 삶의 엄중함을 온 몸으로 보여주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금오산 약사암> 네 번째 이야기 “도선굴과 대혜폭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도선굴 불단 | 오늘은 어떤 소망을 지닌 중생들이 저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지.....

풍수지리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도선국사가 잡은 자리인 만큼, 해운사 주변에는 기이한 볼거리가 '도선굴道詵窟'과 '대혜폭포大惠瀑布'로 남았다. 대혜폭포는 해운사에서 몇 걸음 되지 않는다. 도선굴은 대혜폭포 앞에서 오른쪽으로 200m가량을 더 올라가야 한다. 입구에는 옛터 하나가 비었다.

도선굴로 오르는 길의 오른편은 아예 수직의 낭떠러지다. 게다가 바위 자체가 단양에서 나오는 자주색 벼룻돌처럼 생겨 길이 매우 미끄럽다. 그렇지만 조망 하나는 일품이다. 해운사의 기와지붕은 물론이요, 멀리 구미시가 바라다 보인다.

중간에 만나는 바위 하나는 아예 보관을 쓴 '큰 바위 얼굴'처럼 생겼다. 구미시를 바라보는 자세가 자못 인자하면서도 근엄하다. 영겁의 세월 동안 들이친 풍상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련만, 여전히 대인의 풍모를 잃지 않은 큰 바위 얼굴이다.

짜릿하게 깎여 나간 절벽의 한가운데쯤 뚫린 천연동굴이 도선굴이다. 입구의 건너편에도 패이다 만 구멍 하나가 뻥하다. 단단함이 못내 겨워서 뚫어 놓은 숨구멍인 듯 싶다. 이름으로 미루어 일찍이 도선국사가 도를 깨쳤다는 동굴이라고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다.

뒷날의 야은 선생도 이곳을 즐겨 찾아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쇠사슬로 난간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뒷받침하는데, 그 옛날 도선국사와 야은 선생은 어떻게 도선굴을 드나드셨을까?

도선굴은 두 길이 충분하게 넘는 높이다. 좌우의 폭도 그에 지지 않으니 아주 큰 입구라고 하겠다. 깊이는 겨우 서너 길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안쪽이 다시 좌우로 뚫리다 말았다. 오른쪽이 약간 더 깊고 넓은 형국이라서 여기에 조출하게 불단을 조성하였다.

불단 앞에는 지금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와 언제나 기도하면서 절을 올린다.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갔는지 동굴의 상단부가 양초의 그을음으로 까맣다. 고통의 바다를 외롭게 저어 나간 한 많은 중생들의 타들어 간 속내 같다.

뒤따라온 해운사 스님의 말씀으로는 도선굴 한가운데가 가장 맑은 기로 충만하단다. 정중앙에서 지름 2m가량의 원을 발끝으로 그어 가며 하신 말씀이다. 동굴의 외곽선과 적당히 어우러져 바깥 경치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차마 멀리하기 힘든 속세가 저만큼 거리를 유지하며 한쪽에 복잡한 건물로 들쭉났다. 차량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도 사라진 유령의도시처럼 조용하다. 멀리서 관조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불현듯 일깨워지는 도선굴 안이다. 그래서 한번쯤은 가만히 눈을 감아 보는 곳이기도 하다.



대혜폭포 | 원만한 흐름을 미리 기약했기에 망설임 없이 뛰어내린 물줄기가 순간 고운 물방울로 비산한다.

동굴이 대체로 막힌 공간이라면 폭포는 언제나 툭 터진 곳이다. 동굴의 이미지가 어둡고 답답하다면 폭포는 밝고 시원하다. 도선굴이 깎아지른 낭떠러지에 까치집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데 비해, 아래쪽의 대혜폭포는 절벽 아래로 장쾌하게 몸을 날린 물줄기다. 일제강점기에 어느 일본인이 금오산을 울리는 폭포라는 뜻에서 지은 '명금폭포鳴金瀑布'란 별명처럼 위용을 자랑하며 쏟아지는 물줄기가 대단하다.

대혜폭포는 햇살에 반사된 은빛 물방울이 28m 높이에서 눈부시게 비산하는 형상이다. 철마다 수량이 다르기에, 이곳도 역시 여름날 장마가 지난 뒤라야 가장 기세가 넘친다. 그리고 아름답다. 전설에 따르면, 대혜폭포의 황홀한 모습에 반한 하늘나라 선녀들이 달빛 고운 밤마다 용마를 타고 내려와 목욕을 즐긴단다. 아름다운 전설은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이다. 폭포 앞에 걸쳐진 대혜교 다리에서 동전을 아래로 던져 물속의 '사랑바위'에 엮어 놓게 된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대혜폭포의 물방울들은 담대하다 못해 결연하다. 다른 폭포의 물줄기들은 거의 대부분 소沼로 쏟아지는데 반해서, 대혜폭포의 물방울들은 울퉁불퉁한 바윗돌 위로 제각각 몸을 던진다. 그것도 험상궂게 생긴 검은 바윗돌 위이니 더 큰 물줄기를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아픈 곤두박질이다. 그래서 눈부신 낙하요 부활이다. 그 아름다운 부활은 때때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 물안개로, 물 무지개로 찬란하게 피어오른다.

대혜폭포 위로는 무려 400개가 넘는 계단으로 만든 '할딱고개'가 나온다. 급경사를 타느라 숨이 절로 할딱거려 지어진 고개 이름인데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나무로 만든 계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숨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급경사의 비탈이었다. 이제는 일정한 보폭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고갯마루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숨결은 역시 거칠 수 밖에 없다.

할딱고개의 악명 때문인지 대혜폭포 위쪽으로는 탐방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본격적으로 산행에 나선 사람들만이 할딱고개로 오른다. 고갯마루 왼쪽에는 전망대가 후련하다.

다음 주는 <금오산 약사암> 다섯 번째 이야기 “현월봉보다 약사암”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